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김 영 규

삼위일체적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이해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2002. 11. 28.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호 중

삼위일체적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이해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1月 28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이 호 중

이호중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년 12 월

차 례

I. 서 론

- 1. 연구동기와 목적 1
- 2. 연구 방향과 전개 과정 5

II. 역사적으로 발전된 예정론

- 1.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7
- 2. 특정교리로서 발전된 예정론 10
 - 1)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10
 - 2) 불색과의 논쟁에서 강화된 예정론 14
 - 3)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16

III. 칼빈의 예정론의 일반적인 특징

- 1.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지 20
 - 1)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 20
 - 2) 유기의 원인 26
- 2. 예정의 표징으로서의 성령의 사역 27
 - 1) 선택의 표징 27
 - 2) 유기의 표징 32

IV. 신구약 통일성으로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칼빈의 이해

- 1.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 38
 - 1) 언약의 통일성 38
 - 2) 갈라디아서 주석에 나타난 언약의 통일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 40
- 2.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 구조로 삼위일체 42
 - 1)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대한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 42

2) 성자(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44
(1) 그리스도의 신성	44
(2) 성경의 증거로서의 신성	45
3) 성령의 신성	52
(1) 사역으로써의 신성	52
(2) 신성에 대한 증거	53
4)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	55
(1) 유일성	55
(2) 삼위성	56
3.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1)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	59
(1) 삼위일체의 중심 사상	59
(2) 삼위일체 구조로서의 성자와 성령	62
V. 신약 성경에 근거한 예정론	
1. 예정론에 관련된 성경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	64
1) 영원한 선택	65
(1) 에베소서 1장 4-6절	65
(2) 로마서 9장 11-13절	68
(3) 요한복음 6장 37-40절	73
2) 주권적 공의인 유기	78
(1) 로마서 9장 18절	78
(2)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80
2. 예정론에 반대되어 보이는 구절들에 대한 칼빈의 해석	84
1) 요한복음 3장 16절	84
2) 디모데전서 2장 4절	86
3) 로마서 11장 32절	88
4) 요한일서 2장 1-2절	89

VII. 결론 91

참고문헌

I. 서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다. 진리와 거짓의 공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모르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권능과 작정 및 섭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짓이 우리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신학적 진리 혹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진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과학적 진리의 객관성은 항상 그 대상과 그 내용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다수의 인정이나 확증과 관계한다. 생득적 진리라고 할 지라도 그것의 보편성 때문에 진리로서 인정되는 것이요 실증과학에서의 진리도 인간의 보편성이나 그 보편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천재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하다”¹⁾.

“특별히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에 대한 지식은 바빙크의 말대로 계시의 객관적 내용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 피조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개인이든, 사회 혹은 국가든, 그리고 참과 선과 미와 같은 추상들까지도 아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분의 영광 안에서 그것의 궁극적 목적을 갖는다. 더구나 특별히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라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신학은 그 자체에 궁극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지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 땅에서 신앙을 통하여 그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어떤 축복을 결과로 갖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축복이고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엄밀한 적정과 규범이라는 해석학적 근본원리를 가지고 이제 정통주의로부터 전해 내려온 “삼위일체”와 “인격체들”등의 용어들을 참된 성경적 삼위일체 교리일반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오히려

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 서론. (서울: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 2000). p. 27.

2) Ibid. pp. 30-3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같은 구호 중 어느 하나나 그 모두에 의해서도 ‘오직 성경’의 이념을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의 한계에 그의 말들을 제한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한계에 그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엄밀히 되고 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주의적인 원리는 여기에서 또한 이미 기독교인의 엄격한 매일의 삶과 더불어 결합되어진 것을 또한 잘 인식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들은 성경말씀을 향하여 그 안에서 물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규범”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의 모든 말들이 측정되는”, 즉 “어떤 척도나 표준”으로서 확고히 되어지고 있다. 그의 주석들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 강요의 후대 재판들에서 그렇게 독특한 의미에 있어서 완전하게 확고히 되어진 이런 규범은 계속 정당하게 입증되고 있다.³⁾

이렇게 칼빈에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사용의 의미도 그의 주석을 통해 성경의 구절들을 본다면 참으로 간략하며 핵심을 찌르는 듯한 묘사가 수두룩하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 필요한 문법적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 건전한 판단, 실제적인 재치를 적절히 결합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서들을 볼 때에 그의 해박한 지식과 적재 적소에 펼쳐 놓는 그의 어휘력, 문장의 실력은 탁월하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칼빈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진리가 혼탁해진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말하고 그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신앙의 경건성과 그의 믿음의 확고함 등 많은 그의 삶의 모습을 알고 배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도 그가 지키려고 했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현 시대의 상황을 바라 볼 때 사단의 세력은 거대하다. 진리를 온전히 고수하며 전파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지만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16세기의 칼빈의 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칼빈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의 신학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고로 그의 신학을 이해할 때 그 이해는 오히려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

3) Ibid. pp. 43-46.

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경험을 통해서 표현된 글을 현 시대의 우리의 고정된 사고와 생활 경험 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틀리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본받아 신학 하는 방법, 논리정보보다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신학방법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런 문맥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언급할 때 칼빈의 예정론이 신론 적인가 구원론 적인가 이러한 논점은 칼빈 신학의 중심적 교리를 찾기 위한 논쟁과도 연관이 되는데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성령 중심적인지 문제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강조했다. 예정론이 “기독교강요”에서, 자신의 성경 주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정론을 전개함에 있어 하나님 중심적으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나 성령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세 요소의 균형을 이루면서 구원론 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있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며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분은 그리스도시며 오래 전에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자료를 마련한 그리스도의 공적이 우리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 하여 그 공적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예정과 추진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공적을 쌓았더라도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공적은 우리와는 무관한 공적이 될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을 다시 논하는 것과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정론의 교리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교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좀더 쉽게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B. 연구 방향과 전개 과정

이 논고에서는 성경에 특히 신약성경을 통한 예정론의 교리를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많은 논쟁들 가운데서도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 그의 신학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정론의 교리를 이해해 나갈 것이다.

I 장에서는 서론적인 것으로 본 논고의 연구 목적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 나갈 것인가를 서술하고 II 장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칼빈은 어떻게 예정론의 교리를 발전시켰는가를 볼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정론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알아보고 III 장에서는 칼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예정론을 살펴볼 것이며 이 가운데 예정의 원인, 예정의 표징, 그리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을 논할 것이다. IV 장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칼빈이 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여 그에 대한 통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V 장에서는 칼빈이 신약성경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론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것이다. 그의 독특한 모습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정론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 할 것이다. VI 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II. 역사적으로 발전된 예정론

1.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기독교강요” 초판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4장은 율법(십계명 해설), 신앙(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성례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장은 거짓 성례를 다루고, 마지막 장에는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적 조직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아직 독립적인 교리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칼빈은 그것을 단지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을 설명할 때와 네 번째 항을 설명할 때 다루었다. 칼빈은 두 번째 항에서는 신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 후에 칼빈이 완성한 예정론을 내포하고 있는 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네 번째 항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연합,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선택의 결과-즉 부르심과 칭의, 영화- 선택받은 자들의 견인과 유기된 자들로부터의 분리를 간결하게 언급한다. 칼빈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교회론 자리에서 예정론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정론을 교회론 아래서 다루게 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핍박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해줄 필요성은 교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칼빈은 교회를 선택에 근거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 천사들이나 사람들(엡 1:9-10; 골1:16),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들이거나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혹은 어느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든지 이들이 하나의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다.”⁴⁾ 이렇게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로 정의한다. “교회를 또 거룩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요17:17-19; 엡5:25-32)”⁵⁾ 여기서 사용된 ‘섭리’라는 용어는 예정의 의미로 즉 특별섭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교회의 확실성을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과 연관짓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자체는 흔들릴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가 아니면 변할

4) 포트 배틀즈 서론.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139.

5) Ibid. p. 139.

수도 실패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⁶⁾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는 칼빈은 로마서 8장30절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에 관한 인식의 한계를 그리스도 안으로 제한하면서, 칼빈은 예정에 관한 자세를 언급한다. 누가 교회에 속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나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이다. 또 칼빈은 예정에 관한 자세를 신앙의 유익성과 결부시키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롬 11:1-36).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믿음에는 필요하지 않다.”⁷⁾ 이와 같이 칼빈은 타인의 예정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한 후 칼빈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⁸⁾ 전자는 인간의 지각의 불완전성을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정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을 금하는 한편 후자의 말에서는 성경에 계시된 범위 내에서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추측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칼빈은 선택받은 자와 교회의 회원을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그가 “신앙의 고백, 생활의 모범 그리고 성례전예의 참여로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견해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칼빈은 유기된 자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행동으로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려지고 죄의 탐욕으로 취해있고 자기들의 악함에 매우 무관심한 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들에 의해 그들이 현재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⁹⁾ 여기에서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는 칼빈을 발견한다. 유기의 표시는 출교와도 관련된다. 출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그 생활의 무가치함이나 거침없이

6) Ibid. pp. 140-1

7) Ibid. p. 141.

8) Ibid. p. 143.

9) Ibid. p. 144.

마음대로 죄짓는 모습으로 교회에 거침돌만이 될 뿐 무가치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모임에서 끊쳐 지고 추방되도록 하기 위해(고전 5:1-5; 마18:15; 딤후1:20)” 제정되었다.¹⁰⁾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부연한다.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의 거룩한 교회가 마치 행악 자들과 공적으로 드러난 악한들의 음모단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빈번한 접촉으로 그들의 사악한 삶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으로 좌절되어 회개하고 마침내 바른길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¹¹⁾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표시로 인해 우리가 심판권을 가질 위험성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선택과 유기의 표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심판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자비를 율법에 한정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특정교리로서 발전된 예정론

1) 1539년 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

기독교 강요 제2판은 1539년 말경에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출판업자 웬델린 리헬(Wendelin Rihel)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것은 본래(초판)의 내용 중 어떤 부분들은 다시 보충해서 새로운 제목들을 달았고, 그 만큼 새로운 사실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책의 두께도 세 배로 늘어났다. 즉, 본래 6장이던 것이 17장이 되었다. 1 장은 하나님의 지식, 2장은 인간의 지식, 3장은 율법, 4장은 믿음(사도신경), 5장은 회개, 6장은 믿음에 대한 의인(義認), 7장은 구약과 신약, 8장은 예정, 9장은 기도, 10장은 성례, 11장은 세례, 12장은 주의 만찬, 13장은 기독교인의 자유, 14장은 교회의 권위(Ecclesiastical Power), 15장은 시민의 정부, 16장은 5가지의 거짓된 성례, 17장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

칼빈의 최초의 주석은 로마서 주석인데 그 책에 대한 그의 연구는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정교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자신의 책을 조금 더 방향을 돌려서 신학생들을 위한 안내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칼빈은 17장들 중에서 제 8장에서 “신의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선포의 결과로 드러나는 면과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칼빈은 이렇게 더 발전된 것을 구속사역 다음에 그리고 섭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장에 배치한다.

10) Ibid. p. 144.

11) Ibid. p. 144.

우선 예정론에 관한 본문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전개 된다. 칼빈은 설교되고 안 되는 다양성, 그리고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의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을 예정론과 관련시킨다.¹²⁾ 칼빈은 경험적 증거에 머물지 않고 성경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첫 번째 위험은 지나친 호기심이며¹³⁾, 두 번째 위험은 선택교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다.¹⁴⁾ 칼빈은 예정을 탐구 범위로서 성경적 한계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강조한다. “단지 내가 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점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숨겨두신 것은 조사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신 것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과도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총을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어거스틴도 이 생각을 잘 표현했다. 즉 그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굶어보면서 천천히 걷듯이 성경도 약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전진하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성경을 따라 갈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칼빈은 예정을 이중예정으로 정의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목적들 중의 어느 한 쪽

12)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59년 판)”. 김중흠 외 3인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1. (이하 “Inst” 이라 함) III, 21, 1(OS 4, 368-369): 사실상 생명의 계약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동등하게 전파되지 않고 그것이 전파된 자들 중에 계속해서 혹은 똑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놀랄 만큼 깊다는 것이 알려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Iam vero quod non apud omnes peraeque homines foedus vitae praedicatur, et apud eos quibus praedicatur, non eundem locum vel aequaliter vel perpetuo reperit: in ea diversitate mirabilis divini iudicii altitudo se profert Nec enim dubium quin aeternae Dei electionis arbitrio haec quoque varietas serviat.”)

13)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이미 다소 어려운 것인데 사람의 호기심은 그것을 매우 혼동스럽고 위험하게 까지 만든다. 인간의 호기심이 금지된 샅길에서 방황하며 높은 곳으로 돌진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허락되면 그것은 찾을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각 처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이점에서 그들의 의무의 한도를 깨우쳐 줄 것이다.”:Inst., III, 21, 1(OS 4, 370).

14) “주님이 입을 다무실 때는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는다는 제한 조건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의 입과 귀를 열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에게 침착한 태도의 최선의 한계는 배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기를 그칠 때에는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Inst., III, 21, 3. (OS 4, 371-372).

15) Inst., III, 21, 3. (OS 4, 373)

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사명에 예정되었다고 한다.”¹⁶⁾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전에 구원으로 받아드리기로 단번에 결정하신 자들과 멸망으로 내어 주실 자들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정하셨다고 말한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 사이에서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의 성취가 있는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가 선택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칭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을 인 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이 그의 이름에 관한 지식이나 혹은 그의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하심으로 써 말하자면 이러한 표시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를 계시하신다.”¹⁷⁾ 여기에서 칼빈은 예정의 작정만 얘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표징까지 언급한다.

선택의 확신을 얻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선택의 표징들은 칼빈이 자주 인용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롬8:30)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 본문대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과 연관된다. 또 확실성의 근거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선택의 표징을 칼빈은 예정론에서 칭의를 부르심과 관련시키지만 분리하지는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 혹은 선택의 확실성은 선택의 표징과 그리스도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두 측면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을 통하여 확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은 그리스도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시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그의 은총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의 목적을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써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한다.(엡1:4)”¹⁸⁾

칼빈은 예정의 원인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기인한 예지와 상반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역할과 무관하다. 예정

16) Inst., III, 21, 5 (OS, 4, 374).

17) Inst. III. 21. 7.

18) Inst. III. 24. 5 (OS 4, 415).

에는 하나님의 의지 혹은 그의 기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그는 바울을 인용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엡1:5), “그 기쁘심을 따라”(엡1:9)라고 말한다.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에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¹⁹⁾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대조되고 있다.

2) 불색과의 논쟁에서 강화된 예정론

불색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는 진행중인 역사 속에 있는 죄와 은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불색의 보편 은총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의 본성의 맹목적인 타락 상태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풍부하게 주어지는 은총에 의해 “당연히 조명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정죄된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맹목 상태에 버려진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성경을 서투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불색은 보편은총을 3단계로 구분한다. ① 본래 인간은 계속해서 자유의지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는 능력은 없다. ② 보편은총에 의하여 인간은 실제로 계몽되고 “육감적 마음”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③ 만일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혹은 유효한 은총을 보여 주실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포함하여 신앙과 축복의 증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선택되게 된다.²⁰⁾

불색에 대한 경계가 칼빈의 말에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지워버리는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지를 대답해야만 한다. 성경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것들인 자들을 그의 성령에 의해 다시 낳는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내적으로 가르치고 그의 팔이 계시되는 자들이 믿는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신앙을 은총의 징조이며 보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신앙이 그것의 영원한 원천으로서의 신적 선택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서 알려지게 할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내어주어 누리게 한다. 신앙의 눈은 이 거울에 고정시키며, 접근 할 수 없는 곳에 침투하려고 하지 말자.”²¹⁾

19) Inst., III, 24, 7 (OS 4, 418).

20) 김종희, “삼위일체적 예정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2000, p, 47, 재인용.

21) Concerning, p. 50 (OS 8, 254).

선택과 예정에 관한 불색의 주장은 첫째 영원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둘째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실제상의 진행중인 세계사의 결정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나 그 신앙의 결여에 의해 분리된다. 셋째 주된 배경은 은총과 보편적 조명이고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의 신앙과 불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가 멸망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되는 칼빈의 입장은 첫째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둘째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 분리되는데 그 작정은 역사 안에서의 구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다. 셋째 주된 배경은 죄와 보편적 정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선택하신다. 넷째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는 멸망의 이차원적인 원인이다.

3)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 추가된 예정론

2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1543-1550년 판 기독교 강요는 최종판에 와서는 80개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전적으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완전히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증보를 하였다. 다소나마 계속 보존되어 왔던 1536년 초판의 요리문답 형식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재조정된 것 중 몇 가지를 본다면 첫째 지금까지 섭리와 예정은 하나로 다루어져 사도신경 해석부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섭리론이 하나님을 논하는 제 1권에서 다루어지고 예정론은 구원을 다루는 제 3권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여러 판에서 다루왔던 교회와 그 권세는 사도신경해석에서 신앙이란 제목 하에 논해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들이 제 4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기독교 강요의 결론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제 3권에 배치되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예정론은 제 3권 21-2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칼빈은 선택의 확인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 관하여는 분명히 선택이 확증된다.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는데 이 말의 뜻은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확증된다는 것- 이를테면 지금 인침을 받는다는 것뿐이다.”²²⁾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올지라도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택의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²³⁾

22) Inst., III, 24, 3 (OS 4, 413).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무수한 위험과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신 것은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시기 (요10:28-29)” 때문이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불행할 것이라고 추론한다.”²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예정론이 독립된 교리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제 8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고 칼빈은 이렇게 발전된 것을 구속사역 다음에 그리고 섭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장에 배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는 1554년판에서까지 유지되었다.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는 논쟁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정론이 확대 강화되어 나타난다. 예정론의 경험적 성격과 선택의 표징이 강조된다.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지만 관찰과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그는 예정론을 기본적으로 성경 위에서 수립하면서 그것은 경험과 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선택의 확인 가능성을 확신한다. 계속되는 은총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은총으로 확인된다. 특히 선택과 신앙의 인과관계가 명료화되고 강조된다. 예정과 신앙은 조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보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예정론이 섭리론과의 관계에서 보면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같은 항에서 같이 다루다가 이때에 섭리론은 창조론과 관련시켜 배치시키고 예정론은 계속 구속론과 관련시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칼빈의 예정론은 교회론적 배경에서 전개되었고 1539년판 기독교강요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식의 예정론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논쟁을 거치면서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강화 시켰으며 그것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반영되었다.

23) Inst., III, 24, 1 (OS 4, 410).

24) Inst., III, 21, 1 (OS 4, 369-370).

Ⅲ. 칼빈의 예정론의 일반적인 특징

1.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지

1)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인 원인

칼빈에게 하나님의 의지²⁵⁾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이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에서 우위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하여, 칼빈의 하나님 개념을 스코투스의 신학과 비교하는 시도가 있었다.

칼빈이 예정론에서 지배적인 하나님 개념을 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칼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논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를 거론하는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은 한 인간의 회심은 하나님의 무상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되는 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²⁶⁾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칼빈이 하나님의 예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예정을 논리적으로 앞에 두었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칼빈은 이 점을 들어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립되는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 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추리는 여기서 확실히 공허하게 되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견된 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

칼빈은 논자들이 하나님의 예지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항상 하나님의 의지의 단독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²⁷⁾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들의 법이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공로에 관한 예지사상을 반대한다. 그의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예견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

25) 칼빈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결정’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6) Concerning, 63.

27) Inst., III, 23. 4.

28) Inst., III, 23. 2.

별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지 않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으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정하신다고 한다.”²⁹⁾ 칼빈에게 이것은 예정론의 근거를 뒤엎으려는 위협을 의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로를 예지하신 것을 기초로 예정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공로가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은 은총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의 원인이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³⁰⁾고 함으로써 아퀴나스를 반박한다. 칼빈은 그레고리도 반박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알뿐이고,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대단히 위험한 오류에 빠진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며 떨라고 권고하며,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를 알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³¹⁾ 그러나 “이런 말은 그가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 그는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의존시켰으므로, 사람들이 낙심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이 마음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고 비판한다.

칼빈이 예정론을 말할 때, 인간의 공로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신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칼빈에게 “선택받음으로써 거룩케 된다고 하는 생각과, 행위 때문에 선택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일치할 수”³³⁾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예정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칼빈의 생각은 에베소서 1장 4절 주석에도 나타난다. 바울이 우리가 “창세 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가르칠 때에, 그는 우리편에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다.³⁵⁾ 선택

29) Inst., III, 22. 1.

30) Inst., III, 22. 9.

31) Inst., III, 24. 9.

32)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사도들과 같이 그를 사도직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구원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르게 이해하면 예정은 믿음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것이 아닌 도리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Inst., III, 24. 9.)

33) Inst., III, 22. 3.

34) Inst., III, 22. 3.

35) Inst., III, 22. 1.

이 발생한 때가 창세 전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선택이 무상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³⁴⁾ 또한 바울이 “창세 전에”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4) “그 기쁘신 뜻대로”(엡1:5)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³⁶⁾고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과오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에 관한 예지는 선택의 원인이 아니다.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묻는(고전4:7) 바울의 질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심중에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의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 자산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유기도 공로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며³⁸⁾, 유기와 대조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선택에 대하여 우연히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이다.³⁹⁾

칼빈은 다른 곳에서도 선행이 선택의 원인이라는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⁴⁰⁾ 즉, 하나님은 창세 전에 결정하셨는데, 그 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었으며, 선택 그 자체가 선행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또한 야곱의 신앙과 선행에 관해 예지 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⁴¹⁾ 이것은 바울의 견해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야곱과 예서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행에 관한 고려가 없다고, 바울은 결론 내린다. 이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선의 흔적에 의해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문제가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미래의 경향에 의존한다고 이해

36) Inst., III, 22. 1.

37) Inst., III, 24. 12.

38) Inst., III, 22. 11.

39) Inst., III, 23. 1.

40) 칼빈은 행위가 은혜를 얻게 한다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야곱이 나기 전에 그의 성장과 같이 이미 마땅히 확장되었어야 한다. 사도는 야곱의 선택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 것이라고 가르친다. 사도는 행위를 말함으로서 미래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행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연히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려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끝으로 “선택”과 “목적”이란 말들을 보면(롬9:11),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는 별도로 생각해 내는 원인들이 모두 그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실하다.(Inst., III, 22. 3-4.)

41) 피기우스는 하나님이 야곱의 신앙과 순종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Concerning, p. 79.

한다.⁴²⁾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다. “선택된 자들은 그의 자비의 그릇들이고(참으로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유기된 자들은 그의 진노의, 즉 오직 정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은총과 그의 값없는 자비에 근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그에게 이 교리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위로의 원천이다.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유기에서는 공의가 나타난다.⁴³⁾ 선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느 모로 보든지 자비만 나타나고⁴⁴⁾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⁴⁵⁾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공정하시다. 그래서 만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셨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빛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반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⁴⁶⁾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선택의 근거가 그리스도인인데 반하여 유기교리에는 이에 비교될 만한 요소가 없다. 유기된 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사단을 그들의 머리로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칼빈이 유기를 설명할 때 그가 유기의 근거를 사단 안에 두었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칼빈이 무상 선택에 관해 나타냈던 관심을 공의의 유기에 관해 동일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과 유기의 비 평행성을 볼 수 있다.

2. 유기의 원인

칼빈은 유기 작정의 불가해성을 주장하는 반면 유기된 자들은 정당하게 그리고 그들의 과실에 의해 정죄 된다고 주장한다.⁴⁷⁾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반면 유기의 원인에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을 병행시킨다. 유기된 자들의 멸망은 “그 원인과 기회가 그들 자신 안

42) Concerning, p. 81.

43) Inst., III, 23. 11.

44) Inst., III, 24. 1.

45) Inst., III, 21. 7.

46) Inst., III, 23. 3,

47) Inst., III, 23. 8.

에서 발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유기의 원인과 기회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대로 넘었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나오게 하여 그들이 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묶여 영원한 재난에 넘겨진 것에 관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쟁론하게 해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이 변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 전부가 부패한 덩어리에서 생겨났다면 당연히 정죄 되어야만 한다. 그들이 그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 사망으로 정해졌다 할 지라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에 의해 자연히 사망으로 인도되는 것을 그들이 싫든 좋든 느끼고 있다.”⁴⁸⁾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증거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인간은 현재 예속되어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창조되었을 지라도 재난이 생기는 근인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로부터 사악하고 불순한 상태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칼빈은 “유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미워하셨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폐된 이유로 아담의 타락이전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박정하셨을지라도 죄 외에는 아무 것도 정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 때문”⁵⁰⁾이라고 반박하였다.

바울은 유기의 근인을 복음에 관한 불 신앙으로 정의한다. 이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먼저 오직 이 요인을 하나님의 은폐된 심판으로부터 구별한 후에 그런 것이다.

2. 예정의 표징으로서 성령의 사역

1) 선택의 표징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 즉 로마서 8장 39절에 언급된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도 그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⁵¹⁾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

48) Inst., III, 23. 3.

49) Inst., III, 23. 9.

50) Concerning, p. 99.

51) Inst. III. 24. 2

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 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⁵²⁾ 이처럼 부르심은 그 방법으로 볼 때, 이중적이다. 즉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다.”⁵³⁾ 말씀의 선포를 통한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한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시는데, 복음을 사명에 이르는 냄새로서(고후 2:16 참조),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시는 사람들도 부르신다.⁵⁴⁾ 반면, 개별적 부르심은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⁵⁵⁾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성령의 효과적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⁵⁶⁾

이와 같이 개별적 부르심에는 민족의 공평성, 하나님의 은총과 무상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공통이지만, 개별적인 부르심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중생의 영이 동반된다.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인장인데,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찍혀있다.⁵⁷⁾ 바울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노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척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고전1:22~24 참조).⁵⁸⁾

우리의 선택의 확고성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확신을 든든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⁵⁹⁾ 칼빈은 “자기들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의 말씀과 별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탐구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것이 선택을 검토하는 바르고 합당한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을 택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예정에 대한 논의가 위험한 바다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항해는 안전하고 평온하며 유쾌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선택과 부르심은

52) Inst. II. 5. 5.

53) Inst. III. 24. 2.

54) Inst. III. 24. 8.

55) Inst. III. 24. 8.

56) Inst. III. 24. 2.

57) Inst. III. 24. 8.

58) Inst. III. 24. 14.

59) Inst. III. 24. 6.

60) Inst. III. 24. 4.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무상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을 때에, 육은 적어도 그에게 응답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이다.”⁶¹⁾ 이 점에 대한 실례는 “영생으로 정해진 자들은 믿었다”(행13:48)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부르심에서는 끝까지 선택만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다.⁶²⁾ 부르심이 선택에 의존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으로도 증명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신 자들을 아시고 주목하신다(딤후2:19).⁶³⁾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주시는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무상의 선택은 완전히 설명된다고 칼빈은 말한다.⁶⁴⁾

개별적 부르심은 선택에 참여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선택하실 때에 그들을 이미 자녀들로 정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복을 소유하지 못하며, 반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미 선택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성령을 “양자의 영”(롬8:15)이라고도 하고, “인 치심”과 “미래의 유산의 보증”이라고도 한다(엡1:13~14 ; 고후1:22 : 5:5 참조).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에 의해 장차 양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증명하고 인 치시기 때문이다.⁶⁵⁾ 이렇게 선택의 확신은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⁶⁶⁾

칼빈은 신앙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만 선택이 효력을 나타내며, 여기서부터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⁶⁷⁾

또,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올지라도,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61) Inst. III. 24. 2.

62) Ibid.

63) Concerning, pp. 70-71.

64) Inst. III. 21. 7.

65) Inst. III. 24. 1.

66) Inst. III. 24. 2.

67) Inst. III. 24. 3.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택의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⁶⁸⁾

칼빈은 선택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오류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을 하나님의 협력자로 만들어, 사람의 동의에 의해 선택을 재가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이다.” 그들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단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신앙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다. 둘째, 성령의 은총을 그렇게 약화시키지 않을 지라고 어떤 이유로 선택을 신앙에 의존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신앙에 의해서 확인될 때까지 선택은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⁶⁹⁾ 칼빈은 신앙이 선택에 의존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주석 함으로써 증명한다.

칼빈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 5절도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것과 대비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택은 순서에서 신앙을 앞선다는 것이 분명하다.⁷⁰⁾

에베소서에서 관련 설교에서도 칼빈은 “만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사탄에 의해 파괴될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신앙이 선택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했다. 선택은 신앙보다 앞서지만, 선택은 신앙으로 배워진다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한다.⁷¹⁾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선의로-그것 밖에서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그가 기뻐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거부하신다. 무상의 선택으로 존귀하게 하신 자들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 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제공된 생명을 받게 하시지만, 한편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믿지 않아서 신앙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된다.⁷²⁾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이다.⁷³⁾ 계속되는 은총⁷⁴⁾도 선택의 결과이다.⁷⁵⁾ 일상의 은총도 선택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칼빈은 예정론이 책임 있는 윤리적 행위의 모든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논박한다.⁷⁶⁾ 그는 일부

68) Inst. III. 24. 1.

69) Inst. III. 24. 3. 첫 번째 오류는 로마 카톨릭 학자들의 오류이고 둘째 오류는 루터파, 특히 멜랑히톤이다.

70) Concerning, pp. 69-70

71) Concerning, p. 127

72) Ibid. p. 58

73) Inst. III. 22. 2

74) 칼빈은 무상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 진지한 겸손의 세 가지 은총을 말한다. Inst. III. 21. 1

75) Inst. III. 21. 5

사람들이 그러한 불경한 언사로 예정론을 더럽힌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생활이라면, 선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구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선택에 맞추도록 자극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⁷⁷⁾

거룩한 신앙생활은 선택의 표징과 관계 있다. 이에 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받은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 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의 고백, 생활의 모범 그리고 성례 전의 참여로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견해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표시와 조짐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묘사해 준다.”⁷⁸⁾

2) 유기의 표징

유기에서 작정과 수단의 관계는 선택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대이다. 선택에서 하나님은 승인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조명하시지만, 유기에서는 거절하시고, 강박하게 하시고, 눈멀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며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시지만, 유기된 자들은 버리시고 은총에서 제외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하여 죄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넘겨주신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을 부르심과 칭의로 인을 치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러한 표징들로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시하신다.”⁷⁹⁾ 이처럼 선택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며, 유기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이 달성된다.

유기된 자들이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시며, 어떤 때는 말씀의 선포에 의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키신다.⁸⁰⁾ 말씀의 선포 자체가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칼빈은

76) Inst. III. 23. 12-14

77) Inst. III. 23. 12

78) Inst.(1536), p. 61.

79) Inst. III. 21.7.

말한다.⁸¹⁾ 즉 말씀의 선포를 통한 외적 부르심은 그 자체가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수수께끼로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⁸²⁾ “최고 심판자는 정죄 하시고 그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자들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 두실 때 그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러한 효과에 관하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다. 성경에도 증거가 많다. 똑같은 설교가 백 명에게 선포될 때, 이십 명은 곧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싫어한다.⁸³⁾

말씀을 듣고 강박해 질 경우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악의와 부패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정당하고도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패된 상태로 넘겨졌다는 것이 첨가되어야 한다.”⁸⁴⁾ 칼빈은 마음이 강박해짐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찾음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기(遠因)와 근인(近因)이 같이 나타난다.

80) Inst. III. 24. 12.

81)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주는 왜 바로에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가? 사자를 자주 보내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결과를 아셨고 또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돌아가라”(출4:19),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출4:21).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도 완고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미리 경고하셔서(겔2:3), 그가 귀 먹은 자들을 상대로 노래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다(겔12:2).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가 전하는 말이 불같이 되어 백성을 나무같이 멸망시키며 흩어버리리라고 하신다(렘1:10 ; 5:14 참조). 이사야의 예언은 이 점을 더욱 철저하게 주장한다. 그를 보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6:9~10 ; 마13:14~15 ; 막4:12 ; 눅8:10 ; 요12:40 ; 행28:26~27 ; 롬11:8 참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되 그들의 귀를 더욱 막히게 하시려는 것이며, 빛을 비추시되 그들의 눈을 더욱 멀게 하시려는 것이며, 진리를 설명하시되 그들을 더욱 우둔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약을 쓰시되 그들의 낫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은 이 예언을 적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지 못한 것은(요12:39)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Inst. III. 24. 13.)

82) Inst. III. 24. 13.

83) Inst. III. 24. 12.

84) Inst. III. 24. 14.

칼빈은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실은 마음의 악의와 부패로 인하여 그들이 정죄 받아 마땅함을 증명해 준다”⁸⁵⁾고 함으로써 정죄 받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기된 자들의 부패를 든다.

설교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상반된 효과를 일으키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처럼, 예정 교리도 같은 관점에서 선포되어야 함을 칼빈은 역설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마13:9)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사6:9)는 말씀은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성취된다.⁸⁶⁾

칼빈은 우리가 유기된 표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도록 경고한다. 하나님의 유기 작정이 분명히 개개인들과 관련될지라도, 칼빈은 그 유기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가 분명히 유기된 자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를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 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의 특권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다(딤후2:19).”⁸⁷⁾ “그리고 인간의 경솔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사건들에 의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를 경고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버려지고 희망 없이 포기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그 좁은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남은 사람들 앞에 서있는 것처럼 보여지던 자들이 흔히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견인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마24:13), 그것은 그분만이 구원의 머리이기 때문이다(히2:10).”⁸⁸⁾

칼빈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유기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범죄하게 된다는 점을 나란히 말한다. 진노의 그릇들은 처음에 멸망하도록 준비되었는데, 말하자면 양자의 성령이 없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과실에 의해 멸망으로 빠진다는 것이다.⁸⁹⁾ 유기된 자들의 불 신앙은 범죄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영예롭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릇들이므로(롬9:21 참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에 헛되이 저항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범죄로 쉬지 않

85) Loc. cit.

86) Inst. III. 23. 13.

87) Inst.(1536), p. 60.

88) Ibid.

89) *Concerning*, p. 146.

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분명한 표징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선언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⁹⁰⁾ 때문이다.

성결하지 않은 것이 유기의 표징이라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는 표징과 관련된다. 그 표징들을 칼빈은 이렇게 열거한다. “우리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이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행동으로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려지고, 죄의 탐욕으로 취해 있고, 자기들의 악함에 매우 무관심한 자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들에 의해 그들이 현재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⁹¹⁾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인을 출교 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도 그 사람이 의심할 여지없이 유기된 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과 판단 안에”⁹²⁾ 있기 때문이다. 출교 시키는 의도들 중 하나는 그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한다.”⁹³⁾

이중예정론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상반된 작정인 것처럼 그 표징들도 서로 정반대이다. 예정의 표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는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동반으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 동반으로 예정이 달성된다. 유기의 표징은 선택의 상반되고 부정적인 표징으로 보여진다. 칼빈은 선택의 표징이 내적 부르심과 칭의 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내적 부르심은 중생의 영이 동반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상술했지만, 칭의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유효 적인 내적 부르심이 선택의 표징이라면, 내적 부르심의 금지는 유기의 표징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신앙이 선택의 결과이며 표징이라는 것은 칼빈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강화된 개념인 반면, 성령의 비 동반으로 인한 불 신앙은 유기의 결과이며 표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표징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을 칼빈은 경계한다. 선택의 표징으로 자신의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구별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칼빈은 지적한다.

90) Inst. III. 23. 12.

91) Inst.(1536), p. 61.

92) Inst. IV. 12. 9.

93) Inst. IV. 12. 8, 9.

IV. 신구약 통일성으로서 삼위일체에 대한 칼빈의 이해

1.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

1) 언약의 통일성

칼빈은 신구약 통일성을 말할 때 단순히 기독교론 적인 통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성이요 구원의 길과 서정에까지의 통일성을 의미한다.⁹⁴⁾ 칼빈의 증거 전체를 볼 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⁹⁵⁾과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경륜적 통일성이 칼빈의 언약의 통일성 뒤에 깔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칼빈의 신구약 통일성이 정통개혁주의 안에서 계속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현저히 고백되고 있다.⁹⁶⁾ 따라서 정통개혁주의에서는

94)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도서출판 하나. 1998. p. 56

95) 어거스틴의 통일론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가능하다.(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 첫째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요 동일한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 하신다. 둘째로 그렇게 그 실체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되 성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없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 자체로 있고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한다. 셋째로 그와 같이 삼위일체는 동시에 역사 되지만 이들이 각각 위격들과 관계할 때 성부의 소리,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라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구별의 경우에도 다만 시대에 대응한 자신의 경륜에 따라 구별될 뿐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각각 고유하게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과 관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신대원 강의안. 2001. pp. 26-27.)

9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언약의 통일성으로서의 율법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경영되었으나’, ‘그 실체에 있어서 다른 두 언약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들 아래서 하나요 동일하다.’는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확고히 했다.(7장5-6항) 언약의 시체는 그리스도로써 그는 어제나 오늘 아니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도 그의 사역의 공로와 효과와 혜택이 유사 이래 모든 시대에 살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내려왔다고 고백하고 있다.(8장6항)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방식들에 있어서도 신약시대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입장(11장 6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케이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여 율법에도 그 예식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유효하여’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7장5항)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유아와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유아에게까지 선택사상이 적용함으로 도르트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고 더구나 예정론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는 타락전 선택설을 받아 드림으로 고마루스의 입장을 고양하고 칼빈의 바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Ibid. pp. 292-293.)

루터주의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코케이우스의 성경신학적 언약론을 비판명성이 지나치지 않았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사이에 죄의 용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들이 신 구약을 통해서 발전된 것도 아니다. 계시의 점진성이 신구약 사이의 실체의 통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⁹⁷⁾

칼빈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1559)의 제 Ⅱ권 10장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에 대하여’와 11장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갖는 차이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칼빈은 언약의 본질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사 자기 백성 중에 가입시키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언약을 맺게 한 율법과 교리는 현재 우리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⁹⁸⁾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족장들은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에 참여하며 같은 구원을 바라보았다”⁹⁹⁾는 것이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지는 이 둘이 하나다”¹⁰⁰⁾는 점을 칼빈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룰 때 주의 할 점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차이가 있으며 그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엄연한 통일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인정이다. ... 모든 차이점은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¹⁰¹⁾ 칼빈은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지는 이 둘이 하나인데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의 중요한 점을 말하는데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하며 도리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영생의 희망을 주셨고 신탁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 이 선택을 보증하시며 확인 하셨다. 둘째 그들을 주에게 묶어 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었다. 셋째 그들은 중보자 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¹⁰²⁾고 한다.

고양하고 칼빈의 바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Ibid. pp. 292-293.)

97) Ibid. pp. 26-27.

98) Inst. II. 10. 1.

99) Loc. cit.

100) Ibid. II. 10. 2.

101) Inst. II. 11. 1.

102) Inst. II. 10. 2.

2) 갈라디아서 주석에 나타난 언약의 통일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칼빈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특히 4장 1-2절을 통해서 언약의 통일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주석을 보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후견인, 그리고 아버지를 이야기 할 때 율법과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바울이 옛 언약아래 있던 이스라엘 교회와 기독교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사이에 어떤 점이 유사하며 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이 비교는 가장 유익하며 극히 풍부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¹⁰³⁾ 칼빈은 유사점과 다른 점을 말하면서 여기서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언약의 유사점은 “옛 언약아래 있던 선조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들도 동일한 양자로 참여하고 강포한 무리의 몽상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저들의 외적 상태는 노예였지만 저들의 양심은 자유로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저들을 값없이 죄사함 받는 원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며 저들의 양심은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 저들은 또한 우리와 더불어 믿음으로 진정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저들은 우리와 함께 유일한 중보자를 신뢰하고 있으며()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동일한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¹⁰⁴⁾고 언급하면서 칼빈은 삼위의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과 옛 선조들 사이의 차이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모든 언약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와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식이나 관리는 부속물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그 당시는 교회의 유아기이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래 교회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⁴⁾

103) 존 칼빈, “갈라디아서 주석”. p. 589.

104) Ibid. pp. 589-590.

2. 기독교강요의 전체적 구조로서 삼위일체

칼빈은 삼위일체 논증에 대한 방법을 언급했다.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개한 성경적인 증거들의 인용과 성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성자와 성령께도 돌려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고 삼위일체론을 확립해 나간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는 말씀의 신격과 영원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격을 증명한다.

1)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대한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

기독교 강요의 1권 13장(Unicam Dei essentiam ab ipsa creatione tradi in Scriptris,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성경에서 창조 자체로부터 자체 안에 세 위격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한 본체를 알려준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다. 기독교 강요 1권 13장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는 곳이 "기독교 강요 강독 I"을 보면 "이 제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아마 사도 신경의 첫 부분의 주석 안에 종속적으로 전통적 삼위일체론을 논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조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조로 바꾸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아래 삼위일체의 내용(una Dei essentia,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그 자체 안에서 세 위격들을 포함하는')을 포함하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2권은 기독교론이고 제 3권은 성령론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제 3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얻는) 양식(modus)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해의 근거로서 상기 제목에서 '창조 자체로부터'(시작하여)하나님의 한 본체를 알려준다는 표현에 있는데 그 표현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와 같이 본질이 그의 모든 사역에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⁰⁵⁾ 이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해한 방식이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구조를 세심하게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¹⁰⁶⁾ 그러

105)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 I".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 52.

106)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권은 창조자 하나님에

나 이에 대한 입장과 다르게 논하는 사람¹⁰⁷⁾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올바르게 표현한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2) 성자(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1) 그리스도의 신성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재에 있다. 칼빈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쪽으로부터 나온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roman 상상하는 것과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벧전 1:10-11)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명령의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실로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은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도 모호한 데가 없음

관한 지식에 대해서, 제 II권 처음에는 율법아래 조상들에게,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 III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제 IV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 칼빈은 이제 최종판에서 이전판에서 보다 더욱 세분하여 다루므로 그 분량이 상당히 증보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는 초판(1536)이나 1545/1554년 판에서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등의 구조를 가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이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 논문. 1999. p. 25.)

107) 칼빈은 세례 명령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도 신경을 그의 신학의 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80장으로 구성되었고, 기본 뼈대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는 3구분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사도신경에 근거한 엄격한 삼위일체론적 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은 초판에서부터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로 4분하여 해설하였다. 이것이 3권(1543)에서는 4장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고립된 사도신경의 해설에 불과했다. 여기서 3권과 4권을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때 3권은 성령의 내적 사역, 4권은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하였다.(권해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고려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 4-5. 윤석주. “칼빈의 시편주석에 나타난 삼위일체 구조에 대한 탐구”. 안양신대원 학위논문. 2000. p. 44. 재인용)

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솔로몬은 지혜가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하였다고 소개한 것이다.(잠8:22)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의지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천박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는 한층은 더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 요한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하였는데 곧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만물의 원인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요1:1-3) ...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¹⁰⁸⁾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재 하셨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라고 말씀하여 자신의 선재와 영원성을 나타내셨다. 또 칼빈은 이 말씀을 들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시간의 시작 저편에어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이러한 사실로써 그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확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⁹⁾

(2) 성경의 증거로서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곧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시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증거로 풍부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본문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먼저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칼빈은 이사야 9장 6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

108) Inst. I. 13.

109) Inst. I. 13. 8.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칼빈은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징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포하였다¹¹⁰⁾ 고 해석하여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고쳐 읽으므로 성자를 다만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명백한 표지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일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칼빈은 주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그분 안에 신적인 위엄이 있으시다¹¹¹⁾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사야사 증거 하는 그리스도의 명백한 신성은 우리의 신앙을 확립시켜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움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23:5-6)

칼빈은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분에게는 인간보다 탁월한 어떤 것이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동일한 본질이며 영광이며 영원이며 신성하기에 여호와라 불리는 것이다¹¹²⁾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존재로 오셔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는 잘 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부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의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¹¹³⁾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들은 다만 칭호에 지나지 않으며 입에 올리기에 도 황송한 “여호와”

110) Inst. I. 13. 9.

111) 존 칼빈. “이사야 주석”. 칼빈 성경주석 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원. 1980. p. 315.

112) 존 칼빈. “예레미야 주석”. p. 160

113) Ibid. p. 160.

라는 명칭만이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실질적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 주지 아니하리라”(사42:8)고 선언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¹¹⁴⁾

또, 사사기 6-7장은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에 의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다. 칼빈은 이 여호와와 사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제단을 쌓은 것은 그 분이 여호와이셨기 때문이지 천사에게 제물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⁵⁾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고는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삿13:22)고 외친다. 칼빈은 이 본문의 사실이 바로 여호와와 사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를 향해 이름을 물을 때 그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이 여호와와 사자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말씀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족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는 것은 천사였다고 주장한 세르베투스의 불신앙은 더욱더 가증하다 하겠다. 그러나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이를테면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¹¹⁶⁾

중보자이며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보다 인간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천사라는 칭호로 불리워 졌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인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3:1)

칼빈은 본문에서 주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여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전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한 주장에 미루어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한다¹¹⁷⁾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본

114) Inst. I. 13. 9.

115) Inst. I. 13. 10

116) Inst. I. 13. 10.

문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중보자요 천사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현현이 곧 임박했다¹¹⁷⁾고 해석한다.

이제까지 구약에서의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칼빈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천사로, 아니면 직접적인 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보기로 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칼빈이 말하기를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적 구원사역으로서 그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먼저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 사도들의 증거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예언된 내용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거나 성취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이사야 8장 14절과 로마서 9장 32-33절을 비교해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무가 되시리니”(사8장1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롬9장32-33)

칼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 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도의 교훈을 인용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20절과 신명기 6장 4절을 비교해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요일 5:2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시니”(신6:4)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분은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분이신 것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빌2:6-7)라고 증거한 사도 바

117) Inst. I. 13. 10

118) 존 칼빈. “말라기 주석”. p. 420.

울의 증언을 말하면서 더불어 요한의 본문 말씀을 들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이방 신으로 오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는 증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으로 불리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증거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도마는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요20:28)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계시된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거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칼빈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셤다는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 한다.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최대의 사역은 구원사역이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라”(요5:17-18)

칼빈은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일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나타낸 증거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에 둔감했던 유대인들조차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행하신다고 느꼈던 것이다.¹²⁰⁾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 하셨다.

3) 성령의 신성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 한 방식과 동일하게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보다는 간략하게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9) Inst. I. 13. 11.

120) Inst. I. 13. 12.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신적 사역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 칼빈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한다.

(1) 그의 사역으로써 신성

성령의 신적 사역으로는 창조사역과 선지자들의 파송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성장,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창1:2)

칼빈은 성령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완전한 혼돈 덩어리를 고이 보존하시고 창조를 준비하셨으며,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 나이다”(시104:30)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령께서 직접 참여하셨다고 주장 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한다.¹²¹⁾

아무리 무질서한 혼돈의 덩어리일지라도 성령의 은밀하신 권능에 의해 얼마 동안 지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으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는 우주의 창조 사역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참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다윗의 시를 통해 칼빈은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칼빈은 성령께서 창세 이전부터 혼돈의 덩어리를 보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여 신성을 증거 한다.

또한, 선지자 파송으로서 신성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사48:16)

칼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해하면서 성령이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이다.¹²²⁾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하나님과 본체에 있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성령’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모든 선지자의 유일한 교사요,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고 말한 뒤에 곧이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12:6)라고 말한다. 이 구절도 역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¹²³⁾

이사야가 자신을 파송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라고 고백하여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칼빈은 분

121) 존 칼빈. “창세기 주석”. p. 40.

122) Inst. I. 13. 14.

123) 존 칼빈. “이사야 주석”. pp. 486-487.

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할 선지자들을 과송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공동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신적 위엄이 빛난다고 말한다.

(2) 신성에 대한 증거

칼빈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어 보다 명백하게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5:3-4)

칼빈은 본문의 주석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성경의 증거가 성령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 해 준다고 말한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인 자라는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하는 것이다.

또,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행 28:25-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6:9)

칼빈은 두 본문에서 비교되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한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표현했다는데서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2)고 하셨다.

이 본문을 통해 칼빈은 성령의 신적 위엄이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위엄은 훼손 당하지 않으며 결코 범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위엄이며 그 위

업을 범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한다.¹²⁴⁾ 칼빈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¹²⁵⁾ 이와 같이 칼빈은 성령의 신성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하여 성령의 신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

(1) 유일성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칼빈은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말한 에베소서 본문을 인용하여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며 또한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¹²⁶⁾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세례를 통하여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위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즉 주님께서서는 신앙의 완전한 빛이 현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명백하게 자신을 나타나 보이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칼빈은 신앙은 다양한 대상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¹²⁷⁾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아가, “세례는 신앙의 성례”이며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증거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앙에 의한 하나의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한 본질 안에 계시며 결코 본질에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124) Inst. I. 13. 15.

125) 존 칼빈. “마태복음 주석”. p. 485.

126) Inst. I. 13. 6.

127) Ibid.

(2) 삼위성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고 증거한 다음 성경이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부와 성자의 구별에서 칼빈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 창조사역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증거한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요 5:32)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 8:16)

칼빈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신다고 증거한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구별되시는 따로 계신 성부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성부는 함께 계시는 성자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칼빈의 본문을 통한 증거이다.

또한, 칼빈은 창조 사역에서 나타난 성부와 성자를 구별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칼빈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들을 인용하여 성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자신과 말씀(성자)과 구별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¹²⁸⁾고 증거하여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증거한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을 통하여 위의 본문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에 어울리는 선언을 하고 있다. 바울은 한 마디로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롬 11:36)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버지와 비교될 때는 그는 보통 이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을 만들었다.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평범한 화법을 쓰고 있다.”¹²⁹⁾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성부와 구별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128) inst. I. 13. 17.

129) 존 칼빈. “요한복음 주석”. p. 26.

칼빈은 성부와 성령을 구별할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을 말하면서 성자와 성부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하지만 성부와 성령의 구별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성부로부터 성령이 파송하신다는 본문만을 제시하면서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¹³⁰⁾

또, 칼빈은 성자와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구별하시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이 성자가 아닌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다. 이렇게 간결한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 칼빈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면서도 그러나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의 구별을 논증하고 난 후에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서 말하기를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시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³¹⁾고 하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성부로부터 나오는 지혜이신 성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그 지혜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능력의 성령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배출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순서가 있다고 하였다.

3.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1)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

(1) 삼위일체의 중심 사상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사상으로는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또한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130)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31) Inst. I. 13. 18.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정통신앙이며 또한 이것은 어거스틴의 자신의 신앙인 것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중심 내용은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귀중한 것이며 어거스틴은 이런 중심내용을 토대로 하여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나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 하신다.(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sicut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이해를 ‘통일적 경륜(Die einheitliche ökonomie des trinitarischen Gottes)’¹³²⁾이라고 함축적인 의미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외적인 사역들(창조, 섭리, 구속 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들이 위격에 따라 나뉘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어거스틴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타난다.¹³³⁾

삼위일체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도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분할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부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자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령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세분이 거룩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구조화시킨 것에 있다. 즉 삼위일체론에서 핵심적인 표현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 하신다.(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sicut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는 전제를 통해서도 삼위일체의 구조화를 통해 전반적인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며 전체 성경의 통일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설명할 때 어거스틴은 “근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¹³⁴⁾ 그는 성부를 ‘전신성의

132) ‘통일적 경륜(Die einheitliche ökonomie des trinitarischen Gottes)’과 ‘경륜적 통일(Die ökonomie Einheit des trinitarischen Gottes)’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어거스틴과 터틀리안 이전의 교부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Young-kyu Kim, *Calvin und das Alte Testament*, Seoul, 1994, 103)

133)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공교회의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점은 늘 강조되어 왔다. 그런 입장이 잘 교회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단적인 예로 1215년 피오리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건인데 피오리스는 각 위격의 개별적인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였다. 실로 그가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갖은 오류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피오리스가 갖는 이해를 비판한 그 신학적 근원이 어거스틴 이후 범교회가 인정하는 내용인 통일적 경륜이라는 점이 하나의 판단기준임을 밝히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다.(김영규, “장로교 노회제도의 개척자 J.Forbes의 조직신학에 대하여”, 1998,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내용 중에서,) 퍼거슨의 성령론 비판, 김남진, 2001, 안양대학위논문 9면에서 재인용.

134) 이런 근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칼빈보다 어거스틴은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갖는다. 칼빈은 근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인용하면서 전신성의 근원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하나의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은 위격 상호간의 관계에서 성부를 전신성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부는 상대적으로 성자에 대해서 근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령과 관계해서는 단순히 성부가 성령의 근원이라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가 근원이라고 하였으나 두 근원이 아니라 한 근원이라고 하였다.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으신 것처럼 성령과 관계해서 성부와 성자가 한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조 세계와 관계해서는 성부만이 근원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한 근원이라고 하였다. 즉, 피조 세계와 관계해서는 삼위께서 한 실체로서 근원이심을 말하는 것이다.¹³⁵⁾

결론적으로 '근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체에 따른 것, 위격 상호간에 관계에서, 그리고 피조물(우연)과 관계라는 세 가지의 구조이다.

실체에 따라서는 항상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늘 함께 역사 하시며 모든 외적인 사역에 있어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때 세분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상호간에 관계에 있어서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의 경우에는 위격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서 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체에 따라서는 주체가 항상 삼위하나님이시며 언제든지 수동성을 생각할 수 없으나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의 경우에는 성부가 나게 하신 자이고 성자는 나심을 받은 자 이기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과 수동의 성격이 있게 되며 또한 성령의 경우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며 또한 스스로 나오시는 분으로서 수동과 함께 능동성도 인정되고 있다. 즉 영원한 발생과 영원한 발출에 있어서 시간성과 공간성은 결코 사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³⁶⁾

으로서의 성부를 이해하였으나 근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구조로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그가 어거스틴의 구조가 명백하게 설명되고 제시되고 있는 제 5권을 인용하면서 “삼위성의 관계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제시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이 갖는 구조의 성격을 그의 성경해석에 있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cf. John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trans., F.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x iii, 19). 김남진. op. cit. p. 11 재인용.

135)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김중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V, 13. 14.

136)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성자의 발생, 성령의 발출이라는 용어에서 어느 정도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종속되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한 종속의 이해는 위격 상호간의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의 경우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삼위하나님이 한 실체이시며 주체이심으로 수동적이신 때가 없다. 그러나 피조세계의 특징인 시간성과 공간성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이며 비유적이라고 하였다. 즉, 변하시거나 없어지는 것이 없으시며 우연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변하며, 없어지며, 우연성을 가진 피조물과 피조세계에 적응해서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¹³⁷⁾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기 특유하게 계시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도 그 하나 하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됨이 없이 함께 역사 하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부만이 계획하시고 성자만이 구속하시고, 성령만이 적용하신다는 이런 식의 구분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삼위일체 구조로서의 성자와 성령

성자에 있어서 영원부터 나신 자 이기에 위격 상호간에 구별이 있으나 피조물과 관계해서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에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구조와 별도로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와 ‘종의 형체를 따라서’¹³⁸⁾라는 구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성자와 관련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모순되는 듯한 말씀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일이 없게 되었다.

영원한 발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발출의 경우에 대해서 시간이 사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분명히 하였다. 즉 “성자에게 시간의 시초 없이 성부로부터 발생을 통하여 본성에 아무런 변화 없이 본질을 선물하신 것처럼 성령에게 시간의 시초 없이 두 분으로부터 발출을 통하여 본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선물하신 것이다.” “성부께서 그로부터 성령이 발출 하시도록 자체 안에 계신 대로 서로로부터 같은 성령이 발출 하도록 그래서 두 분으로부터 시간 없이 발출 하도록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발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로부터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발출 하신다. 그러나 그(성부)로부터 발출하는 것처럼 저(성자)로부터 발출 하도록 이것을 성부가 성자에게 주셨을 지라도 동시에 두 분으로부터 발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이 둘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둘로부터 발출하신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하셨고 성

에서도 결코 시간과 공간이 배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종속론이 갖는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 성부에 대한 성자의 발생에 있어서 시간성을 부여하였던 아리우스의 경우 종속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다.

137) 어거스틴, *op. cit.*, V. 5. 6.

138)

령은 성부로부터 원리적으로 스스로 시간의 간격없이 주어짐으로 공동적으로 둘로부터 발출하신다”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으셨다”¹³⁹⁾ “그러나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성화하기 위해서 성자로부터 나오시되 동시에 두 위격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종의 형체로서
피조물이 아니기에 성부와 동등하시다.	종의 형체를 가졌기에 성부보다 작으실 뿐 아니라 자신보다 작으시다. 즉 성자는 자기를 비우셨으므로 자신보다 작으며 성령보다 작으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요1:3)	그 자신이 율법아래서 여자에게서 지으셨다.(갈 4:4)
성부와 하나이시다.(요10:30)	그가 오신 것은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려 함이었다.(요6:38-39)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요5:26)	그의 마음이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다.(마26:38-39)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요일5:20)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빌2:8)
성부에게 있는 것은 다 그의 것이요(요16:15)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하신다.(요17:10)	그의 교훈은 그의 것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요7:16)
“모든 언덕들이 생기기전에 그가 나를 낳았다”(잠8:25), “모든 높은 피조물보다 먼저며, 아침별이 돋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110:3) 즉 모든 시대와 시간적인 것들이 있기전에 계신 분이시다.	주께서 나를 그의 길들의 처음에 창조하셨다.(잠 8:22)
“나는 진리라”(요14:6)	“나는 길이라”(요14:6)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자시며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골1:15,17)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골1:18)
빌립은 만물을 지으신 그를 보지 못했다.(요14:9)	빌립은 지음을 받아 파견되신 분을 보았다.

139) 어거스틴. op. cit. X V, 26. 46.

V. 성경에 근거한 칼빈의 예정론

1. 예정론에 관련된 성경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

성경에는 예정¹⁴⁰⁾과 관련된 구절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 중에 선택과 유기에 대한 대표적인 몇 구절만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해 칼빈은 어떤 해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영원한 선택¹⁴¹⁾

(1) 에베소서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¹⁴²⁾

140)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제 3장 3항에서는 이중예정을 고백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그 불변성을 확증하고 있다.

3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되었으며(딤후전 5:21 ; 마 25:41), 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영한 죽음을 얻도록 예정되었습니다.(롬 9:22,23 ; 엡1:5,6 ; 잠16:4).

4항. 이렇게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말이 변할 수 없이 계획되었으며 그 수효도 확장되어 있으므로 증감할 수 없습니다.(딤후2:19 ; 요13:18) A.A.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93-94.

1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장 5항에 언급된 선택에 대한 내용이다.

5항. 생명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불변하는 목적과 그 뜻의 비밀한 계획과 기쁨을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며 영구한 영광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엡1:4,9,11 ; 롬8:30 ; 딤후1:9 ; 살전5:9)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일이며 피조물 편에 믿음이나 선행이나 이 어느 것의 견인이나 그 밖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셔서 그것이 그런 결정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롬9:11,13,16 ; 엡1:4,9)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에 찬양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뜻입니다.(엡1:6,12) Ibid., p.94

142) (엡1:4) kaqwj evxele,xato h`ma/j evn auvtw/| pro. katabolh/j ko,smou ei=nai h`ma/j a`gi,ouj kai. avmw,mouj katenw,pion auvtou/ evn avga,ph|

⇒ 세상의 시작 전에 그(그리스도)안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게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비난할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엡1:5) proori,saj h`ma/j eivj ui`qesi,an dia. Vlhsou/ Cristou/ eivj auvtou,n kata. th.n euvdoki,an tou/ qelh,matoj auvtou

⇒ 그의 뜻(의도)의 목적에(기쁜 뜻)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자기의) 양자로 되게 하셨으니

(엡1:6) eivj e;painon do,xhj th/j ca,ritoj auvtou/ evn h-| evcari,twsen h`ma/j evn tw/| hvgapme,nw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행복의 기초와 첫째 원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어찌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는가 어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이 원리로 돌아가 설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무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므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존엄성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에게 무슨 공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⁴³⁾

바울이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그는 우리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한 말을 바꿔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몸에서 지체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¹⁴⁴⁾

퀘변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격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유치한 퀘변인가!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뿐이지 예견 따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9:11절에서 똑같은 논지를 썼다. 거기서 야곱과 에서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선택이 값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확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것은 응당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요 우리의 어떤 가치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사랑 받는 자 중에서 그것으로 그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143) 존 칼빈. “에베소서 주석”. 존칼빈 성경주석 출판 위원회. 성서원. 1999. p. 260

144) Inst. III. 22. 1.

주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공덕과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정론을 마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처럼 생각하여 무섭게 여기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예정론을 무익하고 온통 해독스러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예정론은 바울이 여기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올바르게 진지하게 잘 다룬다면 이것 보다 더 유익한 교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훈에 관한 지식을 넘치게 하는 참된 샘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외부적인 모든 원인과 비교하였기 때문에 ‘뜻’이라는 말씀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모호한 점을 전혀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쁘신’이라는 대조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기쁘신’이란 말은 분명히 인간의 공덕을 배제하는 말이다. 그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시지 않고 또 우리를 예정하신 동기는 오직 그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 외에 아무 것도 없다.¹⁴⁵⁾

(2) 로마서 8:28-3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¹⁴⁶⁾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것은 그가 곧 이어서 말하게 될 선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인간들

145) 존 칼빈. “에베소서 주석”. pp. 260-4

146) (롬8:28) oi:damen de. o[ti toi/j avgapw/sin to.n qeo.n pa,nta sunergei/ eivj avgaoqo,n toi/j kata. pro,qesin klhtoi/j ou=sin

⇒

(롬8:29) o[ti ou]j proe,gnw kai. prow,risen summo,rfouj th/j eivko,noj tou/ ui`ou/ auvtou/ eivj to. ei=nai auvto.n prwto,tokon evn polloi/j avdelfoi/j\

⇒

(롬8:30) ou]j de. prow,risen tou,touj kai. evka,lesen\ kai. ou]j evka,lesen tou,touj kai. evdikai,wsen\ ou]j de. evdikai,wsen tou,touj kai. evdo,xasen

⇒

이 추구하는 과정에 다만 반대되는 것뿐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경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 이는 그가 그들을 선택하여 그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뜻’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그들이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선택된 원인들을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선하신 뜻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할 것과는 같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해 놓은 하나님의 예지는 어떤 미숙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미리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을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해 오신 수양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양자로 삼을 때 그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는 것이 없으시며 그가 선택하고자 계획하신 자들을 단지 선 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증거는 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선포와 관련하여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어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끄시는 택함 받은 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⁷⁾

(3) 로마서 9:11-13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¹⁴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문에 앞서 언급하였다. 즉 비록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데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공로 없이 베푸는 선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

147) 존 칼빈. “로마서 주석”. pp. 264-270.

148) (롬9:11) mh,pw gar gennhqe,ntwn mhde. praxa,ntwn ti avgaqo.n h' kako,n(i[na h` kat evklogh.n tou/ qeou/ pro,qesij me,nh| ouvkv evx e;rgwn avllV evk tou/ kalou/ntoj
⇒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예정이 변함없이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롬9:12) evrrh,qh auvth/| o[ti ~O meizwn douleu,sei tw/| evla,ssoni
⇒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이로부터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그가 섬기리라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되었다.

(롬9:13) kaqw.j ge,graptai To.n VIakw.b hvga,phsa to.n de. VHsau/ evmi,shsa
⇒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다. 이 선택은 결코 사람들에게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서는 안되며 유기 된 자들이 멸망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엄정함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즉,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버림받은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정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심으로 해서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간에도 구별이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진술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선택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공휟일 뿐이며 이 선택은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되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셋째 진술은 ‘공로 없이 거저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동등하게 필연적으로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시다. 오히려 그는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간과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신다.’ 바울은 이 모든 진술들을 한 구절에 간략하게 포함시키고 있으나 뒤에 가서는 나머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들간에 차별을 두실 때에 아직 있지도 않은 행위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들의 행위의 공로를 따라서 그들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보다 통찰력이 무딘 자들이며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야 하는 신학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나타난 대로 인간의 부패한 성질에서 자기의 은총을 받을만한 아무 것도 찾으실 수가 없다는 원리에 맞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아무도 그때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때에 그들이 다 아담의 자손들이요 본질상 죄인들이며 한 톨의 의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바울의 작정을 우리가 또한 덧붙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죄의 오염은 그것이 악행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자체로서도 정죄 당하기 충분하다. 이로 보건대 에서가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서의 지위가 어떤 악행이나 허물 때문에 악화된 것처럼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미덕과 마찬가지로 죄들도 배제시켰던 것이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이나 악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낸 것이다. 유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같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을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과 유기의 정당한 원인이 그 자신의 뜻에 있다는 교리를 확정해 놓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행위가 선택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면, ‘보상이 행위와 관련되도록’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 그 자신의 선하신 뜻에서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주제에 관하여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따라’라는 구문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는 구문을 덧붙이심으로 해서 모든 의심을 일소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그 문맥을 좀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자. 만일 레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는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선택을 받음으로써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들간에 있는 차이의 원인 그들의 행위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또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고 덧붙여 말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의 불변성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전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공로는 전혀 소용이 없고 다만 그것들은 사망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택함을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유력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택함을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유력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아시는 까닭에 선택하기도 하시고 유기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교리도 그릇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상반된다.

이삭의 아들들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 주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사실에 유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응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뜻은 작은아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었고 큰아들에게는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상속권과 관련된 것이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자기의 어떤 더 큰 뜻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야곱이 육신 적인 면에서 그의 장자권을 인하여 별다른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장자권 때문에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그네길에서 돌아올 때 두렵고 자기의 생명이 남아 있을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한 까닭에 자기형의 밭에 뛰어 옆드려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을 비굴하게 간구 했으며 에서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줌으로써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이 그의 형을 지배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는 형에게 애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장자권 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야곱의 영적 지위는 지배하는 것이었는데 반하여 에서의 지위는 구속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애정을 통하여 이 같은 은총을 얻었으며 그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 말씀은 주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부여해 주신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는 이 구절은 말라기 1장에서 인용해 온 것인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유대인들의 배은 망덕함을 인하여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의 근원을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그의 동생보다 더 낮게 한 특권이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 것도 전혀 없다. 그들의 권리는 동등하되 다만 동생이 자연법에 따라 형에게 복종했어야 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오직 나의 긍휼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 것이며 야곱의 행위에 무슨 공로로 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야곱의 후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의 족속들인 에돔의 족속들은 내가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더 악한 것은, 이 같은 은총을 회상하여 나의 위엄을 경배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땅에 속한 축복들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축복들은 그의 자비의 상징으로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¹⁴⁹⁾

(4) 요한복음 6:37-4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

149) 존 칼빈. “로마서 주석”, pp.294-7

라 하시니라”¹⁵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그의 교훈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완악한 원인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은 여기서 택한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심으로 비록 많은 사람이 믿지 아니할 지라도 그의 가르침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는 다 그에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은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그저 무분별하게 우연을 따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들에게 넘겨주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효능으로 그의 택한 자 속에서 역사 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 아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순종하도록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즉시 친절히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뜻에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부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르침은 모든 경건한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서는 사람 가운데서 그 결과로 주님이 신실하고 참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

150) (요637) Pa/n o] di,dwsi,n moi o` path,r pro,j evme. h[xei kai. to.n evrco,menon pro,j me ouv mh. evkba,lw e;xw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문 밖에 쫓아 내지 않을 것이다.

(요638) o[ti katabe,bhka evk tou/ ouvranoj/ ouvc i[na poiw/ to. qe,lhma to. evmo.n avlla. to. qe,lhma tou/ pe,myanto,j me

⇒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내가 행하려 함이 아니라 다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요639) tou/to de, evstin to. qe,lhma tou/ pe,myanto,j me patro,j(i[na pa/n o] de,dwke,n moi mh. avpole,sw evx aurtou/ avlla. avnasth,sw aurtu. evn th/| evsca,th| h`me,ra|

⇒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가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내가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중에서 다만 내가 그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요640) tou/to de. evstin to. qe,lhma tou/ pe,myantoj me(i[na pa/j o` qewrw/n to.n ui`o.n kai. pisteu,wn eivj aurtu.n e;ch| zwh.n aivw,nion kai. avnasth,sw aurtu.n evgw. th/| evsca,th| h`me,ra|

⇒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그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가질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목적하시는 바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보되어 있는 구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실족되어 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언제나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부름에 의해서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그의 소명(부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손으로 새긴 도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것과 같은 효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를 양자로 택하심을 인 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풍성한 증거로써 이에 대해 더 이상 따지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의 단순한 증거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성령님께 무서운 상처를 가하는 것이다.¹⁵¹⁾

이외에도 로마서 11:28, 9:16, 9:23-24, 9:27, 8:28-29, 11:5-7, 8:30, 11:33, 에베소서 1:9, 1:11, 2:10, 마태복음 24:22, 24:24, 24:31, 11:21-23, 17:12, 25:41, 1:21, 22:14, 20:14-15, 마가복음 13:20, 13:22, 13:27, 요한복음 15:16, 15:19, 8:47, 10:27, 17:16-19, 18:9, 19:11, 13:1, 10:3, 10:34-35, 10:15, 17:2-3, 17:6, 17:9, 13:18, 6:44-45, 6:65, 6:39, 디모데전서 5:21, 갈라디아서 4:4-5, 4:9, 디모데후서 1:9, 2:19, 2:21, 고린도전서 1:24, 1:27-29, 데살로니가 전서 1:4, 5:9-10, 데살로니가후서 2:13, 3:2, 골로새서 3:12, 1:26, 히브리서 6:17, 12:23, 야고보서 1:13, 1:17, 베드로전서 1:1, 1:12, 2:9, 5:13, 베드로후서 1:10, 빌립보서 4:3, 디도서 1:1, 2:14, 요한일서 1:5 등 대단히 많은 곳에서 선택¹⁵²⁾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51) 존 칼빈, “요한복음 주석”, p.227-229.

15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장 6항에서 선택된 자들의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6항.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이 영광을 받도록 정하신 것과 같이, 그 뜻이 영원하며 가장 자유로운 목적으로, 그렇게 되게 할 모든 수단을 사전에 정하셨습니다.(벰전1:2 ; 엡1:4,5 ; 2:10 ; 살후2:13)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됩니다.(살전5:9,10 ; 딤후2:14)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적당한 때에 역사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과 자녀가 됨과 성화를 받으며(롬8:30 ; 엡1:5 ; 살후2:13) 그의 권능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드디어 구원을 얻습니다.(벰전1:5) 선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효과적인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자녀가 됨과 성화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요17:9 ; 롬8:28 ; 요6:64,65 ; 10:26 ; 8:47 ; 요일2:19) A.A. 하지, op.cit., p.97.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선택에 대하여 언급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어떤 계시라도 가지고 있는가?”¹⁵³⁾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은 선택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하였다.¹⁵⁴⁾ 칼빈은 “사탄이 신자들에게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므로 동요를 일으키며 동시에 그 문제를 정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일으킬 때 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할 때는 없다”고 하였다.¹⁵⁵⁾

칼빈이 예수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로 지칭한 것은 선택에 관한 확실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⁵⁶⁾ 첫째, 우리는 칼빈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선택의 거울이라고 한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엡1:4)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없고 또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동참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천국기업의 영광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선택의 증표를 발견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심지어 아버지 안에서 그 증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을 묵상할 때 들여다보아야 할 거울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뜻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되도록 정해 놓으셔서 그가 자기의 지체로 인정하는 자들을 자녀로서 알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귄 가운데 있는 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¹⁵⁷⁾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무상선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작정의 적당한 근거는 예수그리스도이시며 작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선택의 거울이신 예수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153) Inst. III. 24. 4.

154) 로뢰인 베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홍의표 역 베다니, 1996, pp.382-383

155) Ibid. pp. 382-383.

156) 몇 가지 실례에서 칼빈은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거울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cf. 「기독교 강요」 III. 22. 1, 주권적 특징을 가진 은혜 선택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죽을 인생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천사들의 머리”가 되셨던 것이다. 칼빈은 거울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57) Ibid.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에 의한 선택의 교리는 참 신자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며 선택은 풍성한 위로의 열매를 가져다준다.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제시해 준다. “예정에 관한 논의가 아무리 험난한 바다에 비유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를 자초하지 않는 한 그 항해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나는 유쾌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을 보다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의 심연에 빠지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의 영원한 계획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¹⁵⁸⁾

2. 주권적 공의인 유기¹⁵⁹⁾

유기에 대하여 많은 성경의 구절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과 같은 구절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로마서 9:18, 디모데 후서 2:20-21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로마서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¹⁶⁰⁾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 된 자에 관한 결과가 여기에 말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긍휼로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 대하여 그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바울은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데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멸망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기를 좋게 여기신 듯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 된 자 간에 분명하게

158) Inst. III. 24. 4.

15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장 7항에서는 유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혹은 베푸시지 않는 그 뜻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나머지 인류는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예정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찬란한 공의에 찬양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뜻입니다.(마11:25,26 ; 롬 9:17,18,21,22 ; 딤후2:19,20 ; 유4 ; 뱀전2:8) A.A.하지, op.cit., p.101

160) (롬9:18) a;ra ou=n o]n qe,lei evleei/ o]n de. qe,lei sklhru,nei
⇒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가엾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하신다.

드러나 있는 차이를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뜻 이상의 다른 원인을 문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라는 말씀들에 유의해야 한다. 바울은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박케 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때에는 허용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적 진노의 행위를 의미한다. 유기 된 자를 어둡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외적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다. 사단도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내적으로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러므로 예지에 관하여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자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솔로몬도 경건치 못한 자의 멸망이 미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멸망할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¹⁶¹⁾

(2) 디모데 후서 2:20-21

“큰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도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¹⁶²⁾

바울은 신앙심과 열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적절하고 합당한 배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온갖 종류의 설비가 가득한 큰집에 전시용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못하고 볼품없는 그릇이 있다 해서 잘못으로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벽 선반과 테이블 위에서는 금과 은이 번쩍거리는 반면 부엌에는 나무와 질그릇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 다양성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만일 그의 가족에게 부요하고 풍성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큰집에 여러 가지 가구를 두

161) 존 칼빈 “로마서주석”, pp. 304-305.

162) (딤후2:20) VEn mega,lh| de. oivki,a| ouvk e;stin mo,non skeu,h crusa/ kai. avrgura/ avlla. kai. xu,lina kai. ovstra,kina kai. a] me.n eivj timh.n a] de. eivj avtimi,an\
⇒ 이제 큰 집에는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무그릇들과 질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

(딤후2:21) eva.n ou=n tij evkkaqa,rh| e`auto.n avpo. tou,twn e;stai skeu/oj eivj timh,n h`giasme,non kai. eu:crhston tw/| despo,th| eivj pa/n e;rgon avgaqo.n h`toimasme,non
⇒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아주 유익하며 주인에게 각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된다.

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가르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해서 놀랄 이유가 무엇인가? 주석가 들은 큰집이 교회를 뜻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뜻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맥은 우리가 그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사의 식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온 세상과 관련시키고 있다. 곧 로마서 9:21절에서 그는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여기서 사용된 동일한 용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바울의 의도가 선인들이 악인들과 섞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버림받은 것이 수치스러운 노릇이라면 그 수치는 그들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 지 다양한 가구를 그 용도에 따라서 배치하는 가정의 집을 꼴사납게 하거나 그 가장에게 수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영예롭고 더 고귀한 용도에 적응시키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경우를 통해서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할 경우 그 상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하는 점은 마치 거울에 비춰봄과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보기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 없는 생활에 전심할 것을 권면 할 이유를 다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권으로 밝히는 것들을 인간의 의지와 행위의 권한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의 많지만 이것은 아주 경솔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16절에서처럼 인간의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멸을 받으려고 태어난 불 경건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짙막한 경고는 마치 바울이 인간에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성취된 일을 처리하라고 당부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당부하는 자들을 반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¹⁶³⁾

칼빈은 본문을 주석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 하려는 자들은 스스로를 불 경건한 자들의 오염으로부터 청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권면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불 경건한 자들로부터 즉 유기 된 자들로부터 오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케 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과 요한 복음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일서와 유다서 등 여러 곳에서 유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63) 존 칼빈 “디모데후서 주석”, pp. 576-578.

예정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재고할 때에 그는 유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계약에 의해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각 어느 한편의 결말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혹은 생명으로 혹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⁴⁾ “따라서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영원 불변하신 계획에 의해 어떤 이는 멸망으로 결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¹⁶⁵⁾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택함을 받아 버림받은 에서와 구별되었던 것이다.”¹⁶⁶⁾

칼빈에게 있어서 유기는 선택교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선택과 유기는 특정적이고 개인적이다.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의 일반적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유기는 개인적 혹은 특정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칼빈이 고찰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하시는 자들과 진노를 쏟으려고 하는 자들을 작정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신다.”¹⁶⁷⁾고 하는 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주장으로부터 발생한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개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다.¹⁶⁸⁾

하나님의 유기 작정이 분명히 개인들과 관련된다 할 지라도 칼빈은 그 유기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결코 어떤 개인을 들어 그가 결정적으로 유기된 자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갈망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누군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두려움을 피해야 한다.¹⁶⁹⁾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인을 출교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유기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손과 판단 안에”¹⁷⁰⁾있기 때문이다.

164) Inst. III. 21. 5.

165) Inst. III. 21. 5.

166) Inst. III. 22. 6.

167) Inst. III. 24. 17.

168) Inst. III. 23.2-3. cf. III.21.7. 라틴어로는 “*ad singulas personas*”임.

169) Inst. III. 24. 13-14.

170) Inst. IV. 12. 9.

출교 시키는 의도 중 하나는 그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데 있으며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한다.¹⁷¹⁾ 이 점 역시 사도 바울의 교훈과 모범으로 칼빈이 재차 강조했던 내용이다.

칼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인간의 악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불신자들의 궁극적 정죄가 그것이다. 칼빈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결합하였다. “유기된 자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사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악의와 부패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다. 즉 그들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그들의 마음의 악의와 부패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다. 즉 그들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공의로운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며 이는 그들의 정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¹⁷²⁾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영원한 유기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⁷³⁾

2. 예정론에 반대되어 보이는 구절들에 대한 칼빈의 해석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은 더욱 선명하게 들어 난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만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거나 방패로 삼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그것 위에서 표명한 견해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1) 요한 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¹⁷⁴⁾

171) Inst. IV. 12. 8-9.

172) Inst. III. 24. 14.

173) F.H.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신복운 역. 성광문화사. 1987. p.106.

174) (요3:16) Ou[twj gar hvga,phsen o` qeo.j to.n ko,smon w[ste to.n ui`o.n aurtou/ to.n monogenh/ e:dwken i[na pa/j o` pisteu,wn eivj aurtou.n mh. avpo,lhtai avl e:ch| zwh.n aivw,nion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혼자 태어난 아들을 그가 주셨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다만 영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용하는 숨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흘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증거 하시기를 원하는 은혜,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된 화해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초대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온 세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과연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찾고 구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눈만 열어 주신다. 믿음의 놀라운 효과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대로 영접한다.¹⁷⁵⁾

주님께서 쓰신 ‘세상’이라는 말은 비록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초대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온 세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과연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찾고 구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눈만 열어 주신다. 믿음의 놀라운 효과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대로 영접한다. 즉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아무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의 복음의 효능과 부활의 열매를 그리스도와 함께 신뢰 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획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¹⁷⁶⁾

칼빈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되어 있으나, ‘믿는 자마다’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게된다고 말하고 있음으로 해서 세상과 믿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75) 존 칼빈, “요한 복음 주석”, pp. 109-112.

176) F.H.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pp. 111-112.

2) 디모데 전서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¹⁷⁷⁾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불러 그의 진리를 시인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1:16)이라면 복음 전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초청 받는 셈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부르심은 은밀한 선택의 한 가지 증거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 생명의 출입을 보장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 생명의 출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구절이 예정과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유치한 망상이 명백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뜻하고 계신다면 그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서 얼마나 구원으로 나머지는 패망으로 예정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편다. 만약에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개인들을 두고 말을 했다면 이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대답이 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한 경륜을 외적인 상징에 의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실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그의 경륜을 캐고 들어서는 안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각 개인을 상대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스스로 은밀하게 작성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간단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시고자 하신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상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회 계층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 전파가 생명을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자들로 보신다는 그의 결론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이 아니라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의 유일한 관심은 왕들과 외국 민족들을 이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정사실로 삼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⁸⁾

177) (딤후2:4) o|j pa,ntaj avnqrw,pouj qe,lei swqh/nai kai. eivj evpi,gnwsin avlhqei,aj evlqei/n

⇒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오기를 원하신다.

178) 존 칼빈, “디모데전서 주석”, pp. 436-437.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로 이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 칼빈은 사람들의 어떤 계층에도 구원의 길은 막혀 있지 않으며 오히려 누구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긍휼 하심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 로마서 11: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¹⁷⁹⁾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안에 어떤 공로 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가 베풀어주심에 있어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주신다는 것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그가 모든 사람을 값없이 거저 구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 자들은 완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바울의 말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불평할 근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베풀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에 의하여 구했어야 하는 것이다.¹⁸⁰⁾

4) 요한 일서 2:1-2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¹⁸¹⁾

179) (롬11:32) sune,kleisen gar o` qeo.j tou.j pa,ntaj eivj avpei,qeian i[na tou.j pa,ntaj evleh,sh

⇒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순종으로 함께 가두셨음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함이다.

180) 존 칼빈, “로마서 주석”, pp. 376.

181) (요일2:1) Tekni,a mou tau/ta gra,fw u`mi/n i[na mh. a`mar,thte kai. eva,n tij a`mar,thl para,klhton e;comen pro.j to.n pate,ra V\hsou/n Cristo.n di,kaion\

⇒ 나의 작은 아이들아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 함이다.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곁에 우리가 변호자를 가졌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두신 중보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대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가 우리의 의를 성취하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희생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더 솔직한 표현을 하겠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이 계속 적용됨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지적인 두 가지 칭호는 이 구절의 주제에 아주 적절하게 해당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분’과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다.

요한은 이것을 넓게 확대시키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확신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으니 곧 모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유기자들과 심지어는 사단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이유로 삼는 환상적인 우리들의 허황한 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무도한 자들의 망발은 논의 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불합리성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말한다. 이 해석은 일반적으로 학파들 사이에 보급되고 있다. 나는 이것에 관한 진리를 인정할 지라도 그것이 이 구절에 적합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의 목적은 이 축복을 전 교회에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였다 해서 곧 그것 자체가 유기자 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지구 위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자들에게만 선포될 때 비로소 참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¹⁸²⁾

(요일2:2) kai. auvtou,j i` lasmo,j evstin peri. tw/n a` martiw/n h` mw/n ouv peri. tw/n h` mete,rwn de. mo,non avlla. kai. peri. o[lou tou/ ko,smou

⇒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들에 관하여 속죄를 만드시는 자시다. 그러나 우리의 것들에 관하여서만 아니라 다만 또한 세상의 모두에 관하여 하심이다.

칼빈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칼빈은 예정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한 주권적 사역,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절대 무조건적인 것으로 유한한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작정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¹⁸³⁾ 칼빈은 예정론을 통해서 우주의 주권적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2) 존 칼빈, “요한일서 주석”, pp. 192-196.

183) 로뢰인 베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홍의표 역, 베다니 출판사, 1996, p.28

VI. 결론

이상과 같이 칼빈의 삼위일체적 예정론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리의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만을 말해서도 성자만을 말해서도 성령만을 따로 떼어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분리되지 않고 있음을 칼빈과 어거스틴은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언제나 그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첫째로,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예정론을 보면서 그 당시 그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겹게 신앙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변증하며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좋은 교리서로서 기록함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원하신 예정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그 교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둘째로, 그의 일반적인 예정론의 특징을 자세히 알게된다.

셋째로, 칼빈이 말하는 이 예정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약의 통일성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결코 삼위 하나님은 떨어져서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넷째로, 성경의 근거로 예정론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성경구절을 해석하면서 배웠다. 혹 어떤 사람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반박할 지라도 위의 언급들로 인해서 쉽게 반박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의 현 세계에서 정통 개혁주의 교리가 많이 퇴색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교리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으로 돌아가 세계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기대하시고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외국 자료

Calvin, John, Calvin's Calvinism, Edited and translated by Henry Cole. Grand Rapid: Eerdmans, 1956.

_____,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lated by J.K.S. Reid. London: Clark, 1961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 Battles, 2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ume 7. Translator Editor Davi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1972

Calvinus, John. Opera quae super sunt omnia (Corpus reformationum), Ed., G. Baun / E. Cunitz / E. Reuss, Brunaviegea & Berolina. 1863-1900 (CO)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국내 자료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CLC. 1999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 신대원 강의안. 2001

_____. "기독교 강요 강독". 안양대 신대원 강의안. 2001

_____. "조직신학 편람". 안양대 신대원 강의안. 2000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니이젤. W. "칼빈의 신학". 이종성. 대한 기독교서회. 1993

로뢰인 베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 홍의표. 베다니 출판사.

1996.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외 1명.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박용기. “기독교 예정론”. 진리의 말씀사. 1994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에드윈 팔마, “칼빈의 5대교리”, 박일민, 성광 문화사, 1999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한국 신학 연구소. 1999

존 칼빈. “기독교강요”. 양낙홍.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_____.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명. 생명의 말씀사. 1993

_____. “칼빈 성경주석”. 성서교제 간행사. 1995

하지. A.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헤르만바빙크.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_____. “개혁주의 신문”. 이승구.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_____.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1

헤페. 하인리히. “개혁과 정통교의학”. 이정석.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연구 논문

김남진.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의 입장에서 S.Ferguson의 성령론 비판”. 안양대신대원 학위논문. 2001.

김도희.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삼위일체론 이해”. 안양대신대원 학위논문. 1998.

김재선. “예정론이 성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안양대신대원 학위논문. 2000

박상봉.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안양대신대원학위
논문. 2000

윤석주. “칼빈의 시편주석에 나타난 삼위일체 구조에 대한 탐구”. 안
양신대원 학위논문. 2000.

이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년)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
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신대원 학위논문. 2000.

정동권.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안양대 신대원 학위논문. 1999

조성재.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가 갖는 신학적 객관성에 관하
여”. 안양대 신대원 학위논문. 2000.

기타 자료

“칼빈에 관한 자료집 제 1 권 : 예정과 선택”. 안양대신대원 조직신
학회 모음집. 2001